

2012년 1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2. 2.23(목) 15시

주요 논의 내용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 의결

2. 지난회의 모니터 내용에 대한 회사측 답변

3. 위원회 논의 내용

▲ 프라임타임

- 프라임타임이 중요, 프라임타임 시간대 재조정 필요, 실시간 속보의 강점을 살려 라이브 초대석 편성해야(홍승용, 김정연, 최종준, 한박무 위원)

▲ 시청률

- 현장 중심 생중계, 타 방송사와의 차별화 노력으로 시청률 상승 중

▲ 실시간 뉴스 자막 처리

- 자막으로 실시간 주요뉴스를 소개한 것은 인상깊음(홍승용 위원)

▲ 뉴스 채널의 광고 방영

- 뉴스 중 광고 방영 시간이 너무 빨리 도달하는 건 문제(임영호 위원, 박영상 위원장)

- 공정 보도와 광고수주 둘 다를 고려해야(이상목 위원)

▲ 기획보도 강화 필요성

- 사전 기획보도를 강화 보완해 나가야. 특히 여수 엑스포 등 국내 빅뉴스에 대한 기획보도 필요(홍승용 위원)

▲ 홈페이지, 인터넷 서비스 개선 필요

-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및 사용자 편의 고려 필요(임상혁 위원)

- 프로그램별 다시보기 제공 필요(한박무 위원)

▲ 스마트TV 시대 대비 필요

- 실시간 뉴스를 잘 포장해 스마트TV 시대에 대비해야. 또 소셜네트워크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상목 위원)

- 50~60대 남성 외 새로운 수요층을 찾아야(이상목 위원)

▲ 프로그램 보완 필요

- '취재뒷마당', '찾아가는 뉴스', '포토뉴스' 디테일을 보완해 나가야. 사진이 잘리는 것은 신경써야. 프로그램 아이디어는 좋으니 내용을 보완해 나가야(김정연 위원)

▲ 앵커, 기상캐스터 복장

- 현장성 강조한 의상으로 신경써야(김정연 위원, 차경애 위원)

▲ 사회적 소수자 배려 필요

-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화면 해설을 수화로 제공하면 좋을 것. 소외 계층 배려 방안 필요(이석구 위원)

▲ 글로벌 뉴스의 강점 살릴 필요

- 잠재력 있는 글로벌 분야의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 편 요소 추가도 좋을 것(한박무 위원, 차경애 위원)
- 국제뉴스의 폭넓은 인력풀을 활용, 뉴스 폭지의 역동성, 입체성을 살릴 필요(김경모 위원)

▲ 재방 비율 낮추고 콘텐츠 차별화 필요

- 콘텐츠 차별화와 토일 주말 재방률 낮춰야(한박무 위원)

▲ 자막 개선 필요

- 자막이 혼란스러워 보여 정리 필요(박영상 위원장)

▲ 선거 보도 방식 개선 필요

- 경마 보도식 선거 보도가 아니라 과정보도 중요시 여기는 선거 보도가 필요. 시민들이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할지 이슈를 알려야. '격전지, 혈투, 전투' 등 용어는 바람직하지 않음(박영상 위원장)
- 선거 보도의 청서, 백서 작업 등을 통해 노하우 확보하고 철저히 준비할 필요(김경모 위원)

▲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

- 디자인 색상 자막 화질 등 모든 면에서 방송이 많이 안정돼 가고 있음(홍승용 위원, 임상혁 위원)

▲ 기타

- 정보, 사회적 지식, 공지사향 등이 합쳐져야 좋은 뉴스. 뉴스와이 뉴스는 다소 단조로움(박영상 위원장)
- 지방 관련 프로그램, 인터뷰 프로그램도 보완 필요(한박무 위원)
- 스포츠에 할애하는 시간 많아질 필요(최종준 위원)
- 한쪽의 입장만 인터뷰하거나 멘트를 그대로 따와선 안됨(임상혁 위원)
- '북한은오늘' 기자 멘트의 속도 조절 필요. '글로벌Y' 음향 개선 필요. 상충되는 내용의 보도는 신경써야. 이슈토론은 토론이 아니라 인터뷰 같은 느낌이 들어 아쉬움. 정치권의 공천작업 관련 보도에서 여야를 공정한 입장에서 보여줘 좋았음. '사람들'에서 다문화 가정 사례를 소개해 다문화 가족들이 많은 용기를 얻었을 것.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사례를 앞으로도 발굴했으면 좋겠음. (차경애 위원). (끝).